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10

중간점

Jeff Pippenger

2026-05-14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같은 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제시된 역사와 일치한다.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 가운데 미국의 배도한 공화당의 뿔의 계보는 도널드 트럼프로 표상되며,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 뿔의 계보는 마카비로 표상된다. 교황권의 바다 짐승의 계보는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로 표상되고, 용의 계보는 여러 남방 왕들과 마케도니아의 빌립으로 표상된다. 십사만 사천의 계보는 베드로로 표상된다.

중간 시대

그 숨겨진 역사 안에서, 그 중간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250년은 207년에, 곧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마지막 두 대리전인 라피아와 파니움 전투의 중간에서 끝났다. 1776년에 시작된 땅의 짐승의 250년은 2026년에 끝나는데, 그 해는 땅의 짐승의 정치 무대에서 "중간선거"의 해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신 세 번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파니움)에 있다.

그 평행한 노선들의 역사에서 베드로는 내슈빌 위에 임할 불덩이들의 경고를 바로잡고 반복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의 이름은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의 한가운데에서 바뀌었는데, 이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브람의 장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확인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의 한가운데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죽음의 언약의 표를 가리키는 것과도 상응한다. 그 중간점은 십사만 사천이 라오디게아인에서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되는 곳이며, 세 천사 가운데 한가운데는 둘째 천사이다.

둘째 단계, 곧 중간 지점은 첫째이며 기초적인 시험에 이어지는 둘째 성전 시험의 때이다. 2024년의 첫째 시험은 로마의 상징으로 외적 이상이 확립되는 것이었고, 둘째 시험은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 마라(거울) 이상이다.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 자정의 외침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래한다.

1840년의 밀러 운동 역사에서 요시아("하나님의 기초"라는 뜻) 리치는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이슬람 예언에 대한 자신의 식별을 수정하였고, 1844년에는 사무엘 스노우가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 가운데서 1843년의 예측에 대한 수정을 제시하였다. 2026년의 베드로는 1843년의 밀러 운동의 실망으로 예표된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한 실패한 예측을 바로잡고, 1840년 요시아 리치의 사업으로 예표된 이슬람의 기별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1840년과 1844년의 이 두 밀러 운동 사건은 각각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 부여와 1844년 8월 17일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 부여를 나타낸다. 이 둘은 함께 내슈빌의 불덩이들이 내려올 때 자정 외침의 능력 부여를 가리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에 연합하는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한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현현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모든 선교지에 전해졌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어느 나라에서든 목격된 것 중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문제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섭리가 내슈빌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화가 9/11에 도래하였을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의 펜타곤이 그 표적이 되었다. 넷째 비행기는 땅에 추락하였다. 땅 짐승의 상징은 땅이며, 그 경제적 위력의 상징은 뉴욕이고, 그 군사적 권세의 상징은 펜타곤이다. 미국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황권의 권위의 표와 짐승의 우상인 교회와 국가의 정치 체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때, 그것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이 땅 짐승이 권세를 사용하여 신실한 자들이 매매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제칠일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예언적 상징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병거와 기병들(군사적 위력)과 많은 배들”(경제적 위력)로 제시된다.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이슬람이 뜻밖에도 영화로운 땅을 네 차례 친다. 첫 번째는 9·11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과 그 다음 내슈빌이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 곧 일요일 법령이다. 발람과 세 천사의 문맥에서, 2023년 10월 7일의 두 차례 타격과 내슈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두 성경적 포도원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교황권의 치명상이 치유되면, 암흑시대의 두 번째 현현이 시작된다. 첫째 화와 셋째 화는 동일한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예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 화에서 무함마드의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돌렸고, 그 직후 9/11 이후에는 무저갱의 무신론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죽였다. 일요일 법령 때에 교황권의 치명상이 치유되고, 가톨릭주의의 짐승은 여덟째가 성취되는 예언적 수수께끼(부활을 상징함)를 성취한다. 그때 암흑시대의 두 번째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는 발람의 세 번째 이정표로서, 나귀가 말하며 열쇠를 돌려 무저갱을 다시 열 때이다. 9/11 이후에는 무신론, 곧 용이 무저갱에서 나와 온 그리스 영역을 격동시킨 가장 부유한 왕을 대적하여 싸웠다. 일요일 법령 때에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며, 어둠이 다시 해를 가린다.

왜 내슈빌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은 무엇인가? 내슈빌은 한밤중 부르짖음의 기별이 선포되는 짧은 기간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 기간은 이슬람에 의한 뜻밖의 파괴적 공격으로 시작되고 또한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그 기간의 끝에 있는 일요일 법은 미국에서 짐승의 표의 강제를 나타내며, 도시들의 멸망의 시작을 의미한다. “멸망”은 이슬람의 예언적 특성이다.

멸망

“그저께 밤, 매우 인상적인 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몇 채의 아름다운 저택들 한가운데로 떨어져 그것들을 즉시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이처럼 속히 이를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이들은 ‘당신들은 알고 있었구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소? 우리는 알지 못하였소’라고 말하였다. 사방에서 나는 이와 같은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Letter 217, 1904.

9-11

요한계시록의 “9장 11절”은 이슬람 왕국의 성격이 죽음과 멸망임을 밝혀 주는데, 이는 예언에서 이름이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사자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계시록 9/11.

아바돈은 “멸망” 또는 “멸망의 장소”를 뜻하며, 아폴뤼온은 “파괴하는 자”를 뜻한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분노한 말이 풀려나 온 지면 위를 질주하며 가는 길마다 파멸과 죽음을 몰고 오려는 모습으로 상징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무디고 차갑고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하겠는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영과 생기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험악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험악한 문을 통과할 때에, 그 넓이는 한이 없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길은 발람과 나귀의 길이다. 곧 이슬람의 성난 말의 길, 다시 말해 요한의 네 바람의 투쟁, 이사야의 거센 바람, 그리고 네 바람에서 나오는 에스겔의 “바람” 혹은 “호흡”은 9/11로부터 “좁은” 문과 “곧은” 문에 이르는 길을 취한다. 그 좁은 문은 발람과 나귀의 셋째 이정표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가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이같이 세 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민수기 22:26-28.

이슬람의 멸망에 관한 셋째 화의 길은 요한계시록 18:1-3이 성취된 9-11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는 이것을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두려운 광경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임할 일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에 임할 일에 관하여는,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뒤흔드심과

전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강하신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광경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왜 내슈빌인가?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재림교의 한 부류가 수치를 당하고, 요엘에 따르면 “끓어짐”을 당하는 예언적 장면을 나타낸다. 다른 한 부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 예언적 기쁨은 내슈빌과 미국에 임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비유 가운데 기름을 가진 자들과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나타난 입증 때문인 것이다. 기름에는 많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주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자정의 외침의 기별이다. 그 기별은 2023년 말에 점진적으로 인봉이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는 지식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호세아는 그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절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베드로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을 이해할 때 레위기 23장의 구조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숫자 30은 제사장들의 상징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지식”의 문제, 혹은 그 결핍의 문제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의 도래와 연관된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언적 “지식” 혹은 그 결핍은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선포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 기간은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끝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끝을 시작으로써 예증하시며,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이었다.

마지막 때의 순종의 쟁점은, 화잇 자매가 말하듯이 “모든 나라가 관련될” 것이라면, 하나의 동산에만 국한될 수 없다. 안식일과 일요일의 쟁점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초의 시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 시험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또한 밤중 외침의 선포 기간의 끝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경고의 기별에 대한 선포는 오직 2023년 말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별의 개봉으로부터 지식의 증가를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지식에 대한, 혹은 그것의 결핍에 대한 시험은 내슈빌 공격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023년 개봉 때 시작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시금석이 되는 시험은 기름에 근거하는데, 그 기름은 그때 개봉된 예언적 기별 안에 담긴 “지식”이다.

인봉이 풀린 “지식”은 셋째이자 리트머스 시험인 기름으로서 시험하며, 마침내 드러난다. 그 시험은 순종의 시험에서 끝나는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을 시작한다. 그 순종의 시험은 교회를 대표하는 하와와 국가를 대표하는 아담에게서 성취된다. 이 두 실체의 결합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동산에서의 시험은 마지막 때의 시험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곧 남자와 여자인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포함하는 시험이다. 최종적인 순종의 시험으로 이끄는, 인봉이 풀린 경고의 기별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표상된다.

내슈빌은 땅의 짐승의 나라에서 그리스식 교육의 상징이다. 그리스식 교육은 거짓 교육이며, 그것은 악한 지식이고, 선한 지식은 참된 교육이다. 엘렌 화잇이 참여하는 데 동의한 유일한 법인 이사회는 "남부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내슈빌에 위치한 매디슨 칼리지였다. 내슈빌은 그리스식, 곧 거짓 교육의 상징이다. 거짓 교육은 거짓 지식이다. 내슈빌의 의미는 뉴욕시와 펜타곤의 상징성과 서로 평행을 이룬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 다루겠다.

원고 188, 1905년

"내가 내슈빌에 있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하늘로부터 곧장 내려온 거대한 불덩이가 내슈빌에 내려와 머물렀다. 그 불덩이로부터 화염이 화살처럼 뿜어 나갔다. 집들이 불에 타 없어지고 있었고, 집들은 흔들리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거기에 서 있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괴로움 가운데 손을 비비며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고 있었다.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것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전혀 말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치 거의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이 보였다." 원고 188, 1905.